간주관적 웰빙(Intersubjective Wellbeing) 개념을 접목한 지역 커뮤니티웰빙 지표의 중요도 분석*

Analysis of the Importance of Community Well-being Index Grafted onto Intersubjective Well-being

서 인 석 (안양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

Abstract

Inseok Seo

Perceiving that community well-being is composed of the two aspects of individuals and agencies, this research attempted to perform an evaluation of the factors and indices considering these two aspects. As asserted by Amanda (2012), this researcher judged that the simultaneous consideration of individuals and agencies can include evaluations of individuals' inner psychology and external state. As for the evaluation of the external state, the concept of intersubjective well-being was utili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based on this, some implications could be derived.

Firs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all the indices were positive with regard to the diverse external factors of community well-being but were negative with regard to the impairment of nature and economic life to maintain a living. Secon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factor levels show that the community well-being domain that is perceived to need to be most urgently resolved is economic capital, followed by natural, cultural, and infrastructure capital (in descending order of urgency).Finall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all the indices by region show that the most important policy project in Gangnam-gu is that involving the resolution of the air pollution problem. In Guro-gu and Jungu, resolving the air pollution issue was also the top-priority policy project. In Dongdaemun-gu, budget operation was perceived to be the most important issue. As for Mapo-gu and Jongro-gu, unemployed support policy was perceived as the top-priority policy project. The indices that were perceived to be the most important (within the 1st to 5th places in ranking) in the six subject regions were air pollution, job training service, unemployed support policy, paid tax appropriateness, and regional living expenses.

주 제 어: 간주관적 웰빙, 커뮤니티웰빙, EPA 분석

Keywords: intersubjective wellbeing, community wellbeing, EPA analysis

I. 서론

공동체가 바라는 수준에 부합하는 정책이나 물리적 여건을 확보하고, 구성원 개인 간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삶의 질과 행복감을 높이는 것이 커뮤니티웰빙(서인석 외, 2014)의 지향점이다. 커뮤니티웰빙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공동체 영역 내·외부 조건의 합'(서재호·김혜정·이승종, 2012: 43)이다. 이는 더 낳은 지역의 모습을 형성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커뮤니티웰빙의 연구는 지역공동체의 바람을 확인하고, 지역공동체의 부족한 부분을 짚어내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물론, 커뮤니티웰빙의 요소와 지표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또는 지역마다, 경제적 수준에 따라 다양하고 서로 다르게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국가의 맥락에서 또는 지역사회 맥락에서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안된 Kee et al.(2014)과 이승종 외(2013)의 연구 역시 개인과 집합체의 혼용된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비전을 제시하지는 못하였기에 두 개념을 구분하여 척도화하고 측정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즉, 개인과 집합체의 관점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커뮤니티웰빙은 하나의 척도(개인 또는 집합체)로 진행하기 보다는 두 기준을 종합한 방식하에서 우선순위가 논의되어야 이론척도와 현실 정책을 연계할 수 있다. 두 가지 기준을 기준으로 관련 사업들을 구분할 수 있으면 지방정부가 달성해야할 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구체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두 기준은 구성원들의 심리적 안녕(개인 수준의 만족)과 구성원들이 지니는 지역 공동체의 웰빙수준이 된다. 좋은 커뮤니티라면 지역사회가 다루고 있는 커뮤니티웰빙이 구성원들의 심리적 안녕(개인 수준의 만족)을 구현함과 동시에 공동체가 가진 역량이 적절한 수준이라고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공동체 수준의 평가).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커뮤니티웰빙의 구성요인과 지표들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나아가 이러한 지표와 정책 우선순위를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가?

개인과 집합체를 동시에 고려한다는 것은 개인의 내적 심리에 대한 부분과 외부 상태에 대한 평가로 구분될 수 있다(서인석 외, 2015: 44). 웰빙은 개인의 만족도와 같은 한 극단이 있다면 다른 한 극단은 개인이 제3자의 입장에서 외부상태를 판단하는 상대적 끝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Amanda, 2012) 개인은 개인의 심리상태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또는 상호작용, 문화가치, 신념, 나아가 외부환경상태 또는 물리적 상태를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White, 2009). 이렇게 내부·외부의 특성을 모두 포괄하여 개인은 웰빙수준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가늠한다. 이때의 사회적 관계 또는 상호작용, 문화가치, 신념 등을 간주관성이라고 간주하는 것이다(서인석 외, 2015).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커뮤니티웰빙의 주관적 측면으로 만족도(performance)를 고려하고, 커뮤니티웰빙의 간주관적 측면으로 평가도(evaluation)를 사용하여 지방정부 커뮤니티웰빙

의 지표 간 우선순위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우선, Kee 모형에 기초해 커뮤니티웰빙 지표들의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이에 기초하여 각 지표들이 2가지 기준을 통해 매트릭스 4가지 영역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판별한다. 둘째, 각 지표들을 6가지 영역(자본요인)으로 통합한 후 6가지 영역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이들 역시 매트릭스의 4가지 영역 중 어느 곳에 포함되는지 조망한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웰빙의 각 지표들과 요인들의 우선순위 결과와 구분된 영역에 기초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보고자 한다.

Ⅱ. 이론 및 제도적 검토

1. 지역사회 삶의 기준으로써 커뮤니티웰빙

커뮤니티웰빙은 최근 대두된 논의로서 인간의 삶의 질, 행복, 복지 등의 관점을 포괄하면서 국가단위가 아닌 지역단위의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이것이 지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바라본다. 과거 성장위주의 발전이나 GDP 중심의 국가운영은 실제로 지역사회나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한다. 즉, 경제중심적 사고로 인해 다소 간과되었던 심리적 안정감이나 지역의 환경 등을 새롭게 조명하고 자연과 인간, 사회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커뮤니티웰빙은 구축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양적성장과 이로 인한 병리가 자리하고 있다.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소외, 차별, 불평등이라는 사회문제가 병존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기영화 외, 2013: 2).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행복한 삶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커뮤니티웰빙은 지역의 물리적 환경, 사회적 관계, 경제적 안정 등을 포괄하게 되면서 인간이 사회적 동물로써 마주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대체로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커뮤니티웰빙은 지방정부의 정책방향을 가이드할 수 있다. '어떤 요소가 가장 시급한지 어떤 요소가 충족되고 있는지' 등 커뮤니티웰빙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커뮤니티웰빙은 주민의 행복이나 웰빙 증진을 목표로 하면서 지역사회 또는 커뮤니티 형성을 촉진하는 지방정책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평가해보는 도구가 될 수 있다(서인석 외, 2015). 이는 커뮤니티단위의 웰빙을 측정하고 현재상황에 대해 진단해봄으로써 미래상황에서 포함해야하는 가치와 목표를 파악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게다가, 커뮤니티웰빙 평가는 지역사회를 역량을 확인하고 지역시민이 바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기에 장기적으로 지역사회가 추구해야할 방향, 목표, 지침을 제시하고 지역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커뮤니티웰빙 개념은 복잡하고 어렵다. 웰빙은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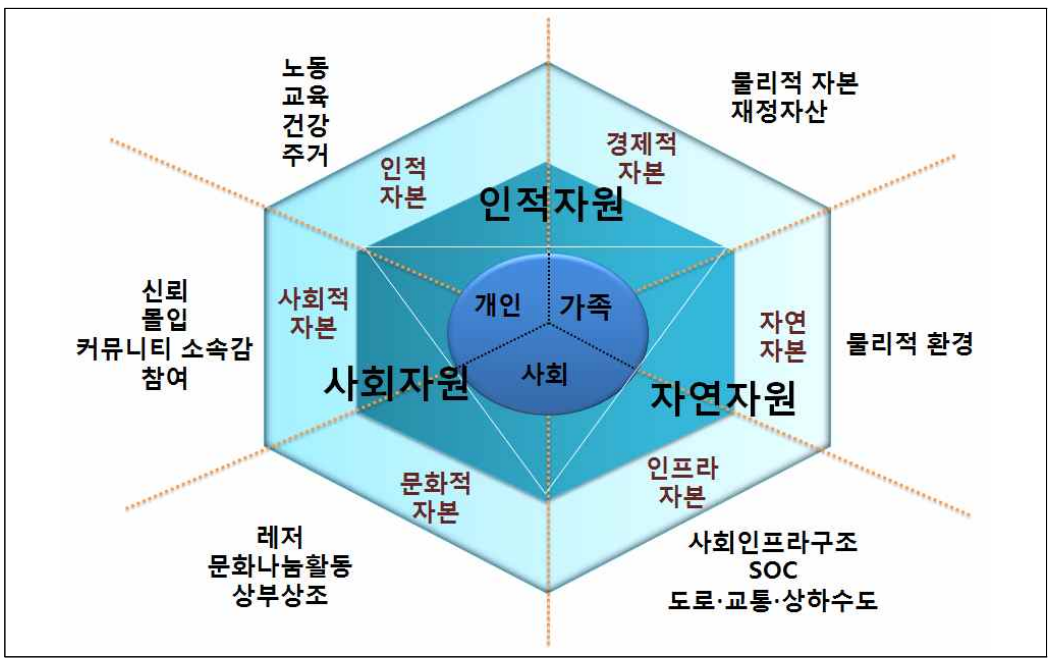
이며,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심리적 만족감으로 귀결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심리 역시도 지역이 가진 외적 속성, 즉 살기 좋은 공간이나 지역의 기술인프라 수준과 같은 요소에 의해 달라질 수도 있다. 따라서, 커뮤니티웰빙을 보다 명확하고, 개념적 또는 이론적으로 확립된 커뮤니티웰빙이 제안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Kee et al.(2014) 모형을 흥미롭다. Kee et al.(2014) 모형은 Smith & Hoekstra(2011)로부터 출발하는데(기영화 외, 2014), Smith & Hoekstra(2011: 21)는 집합체로서 다양하고 복잡한 웰빙을 통합 및 수렴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구성틀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강조하면서 웰빙을 자본의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자본은 경제적 자본 뿐만 아니라 비시장적 자본인 자연자본, 인적자본, 사회자본이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복지와 관련된 논의와 중첩된다. Hicks(1939)는 물질적 차원에서 국가의 복지는 지본의 양 비례하여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초기 자본이론가들의 논의는 복지나 웰빙의 측면이 세대를 아우르는 세대를 넘어서는 지속성의 개념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기영화 외, 2014). 이러한 논의는 웰빙이 단순 'GDP' 이상임을 의미한다. 즉, 웰빙은 현시점에 제한되지 않고 현재와 미래의 복지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발전되었다. 생산기능으로의 협소한 논의를 벗어난다면 자본에 대한 논의는 인간의 집합체 또는 커뮤니티단위에서의 웰빙과 관련된다. 하지만, Smith & Hoekstra의 논점은 자본이 커뮤니티웰빙을 개념화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그치고 있다. 커뮤니티웰빙은 개인의 웰빙을 넘어선 공동체 단위의 웰빙으로써 개인, 개인의 집합체인 가족, 나아가 그들이 어우러진 사회로 구성된다. 따라서 커뮤니티웰빙은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커뮤니티의 문화, 인프라 등 내·외적조건이 균형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Kee et al.(2014)은 이러한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커뮤니티웰빙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모형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 삶의 준거틀로써의 유용성이 매우 높다.

요컨대, 커뮤니티웰빙은 과거의 경제적 성장 또는 GDP 중심의 논의에서 벗어나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집합체) 필요한 요소(예: 소속감), 자연환경, 물리적 여건 등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고려될 때 진정한 행복과 삶의 질이 제고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각 부분만을 다루었던 학계의 논점들(사회복지, 주변 환경)이 통합 및 수렴되고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물론, 통합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개념화 및 일반화된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Kee et al.(2014) 모형은 이론적인 통합틀을 제안함으로써 일반화의 어려움을 일정부분 해소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Kee et al.(2014) 모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평가 및 유관사업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는 도구로써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과 지표를 담아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커뮤니티웰빙 6자본 요인과 지표: Kee et al.(2014)

상기에서 언급되었듯 커뮤니티웰빙은 지역사회의 질을 살펴보는 준거틀이 될 수 있으며, 이때 적용가능한 커뮤니티웰빙 모형으로써 Kee et al.(2014) 모형이 유용함을 강조하였다. 이 모

형은 커뮤니티웰빙의 다차원적 속성을 제시한 것으로써 〈그림 1〉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이 모형은 커뮤니티의 다층수준을 고려하여 6가지의 구성요인으로 모형을 제시하였다. Kee et al.(2014)는 6가지 구성요인을 자본으로 간주하였는데, 이러한 자본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해 자원이라는 상위차원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때 자원은 3가지로 구분되는데, 인적자원, 사회자원, 자연자원이 그것이다. 또한, 이 자원은 각각 개인-인적자원), 사회-사회자원, 환경-자연자원의 3가지 차원을 포괄하고 있다. 이렇게 개인, 사회, 환경이라는 커뮤니티의 내·외부를 구성하고 있는 큰 구분점으로 부터 각각 2가지의 자본으로 세분화를 시도하였다. 즉, 인적자원에 기초하여 인적자본과 경제자본을 도출하였고, 사회자원에 기초하여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을 도출하였으며, 자연자원에 기초하여 인프라자본과 자연자본으로 체계화하였다(김태훈·서인석·기영화, 2014: 85). 무엇보다 이 모형은 개인, 가족, 사회를 균형적으로 아우름으로써 개인차원에서 다루어오던 웰빙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벗어난다. 이에 복잡하고 비체계적인 커뮤니티웰빙 논쟁을 체계적이고 이론적으로 다룰 수 있는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할 수 있는 모형이다.



출처: Kee et al.(2014) 인용

〈그림 1〉 CWB의 다차원 모형(Multi-dimensional model)과 6개 구성요인

연장선에서 해당 이론적 프레임워크는 동시에 구체적인 지표로 전환된다. 인적자본에는 노동, 교육, 건강, 주거의 지표가 포함된다. 경제자본에는 물리적 자본과 재정자산이 포함된다. 자연자본에는 물리적 환경이 포함된다. 인프라자본에는 SOC, 도로·교통·상하수도, 사회의 인

프라구조 등이 포함된다. 문화자본에는 관광레저, 문화나눔활동, 상부상조 등이 포함된다. 사회자본에는 신뢰, 몰입, 커뮤니티 소속감, 참여 등이 포함된다(서인석·이승종·기영화, 2014: 181).

〈표 1〉 커뮤니티웰빙 영역 및 측정항목[1)]

최상위영역	요인	만족도	평가도	측정항목
커뮤니티 웰빙 (CWB)	인적자본	p0101	c0101	지역건강상태 만족 & 평가
		p0102	c0102	의료서비스 만족 & 평가
		p0601	c0601	노인서비스 만족 & 평가
		p0602	c0602	장애인서비스 만족 & 평가
		p0603	c0603	보육지원서비스 만족 & 평가
		p0604	c0604	전반적 복지서비스 만족 & 평가
		p0501	c0501	공공도서관 만족 & 평가
		p0502	c0502	평생교육서비스 만족 & 평가
		p0503	c0503	교육환경 만족 & 평가
	경제자본	p1001	c1001	직업훈련서비스 만족 & 평가
		p1002	c1002	실업자 지원정책 만족 & 평가
		p1003	c1003	개인 일자리 만족 & 평가
		p1101	c1101	재정 규모 만족 & 평가
		p1102	c1102	예산 운용 만족 & 평가
		p1103	c1103	납부세금 만족 & 평가
		p1201	c1201	전반적 경제적 상황 만족 & 평가
		p1202	c1202	지역 생활비 만족 & 평가
	자연자본	p0201	c0201	쓰레기처리 서비스 만족 & 평가
		p0202	c0202	공기오염도 수준 만족 & 평가
		p0203	c0203	공원·녹지 공간 만족 & 평가
	인프라자본	p0301	c0301	대중교통 만족 & 평가
		p0302	c0302	인터넷 서비스 만족 & 평가
		p0303	c0303	도로 상태 만족 & 평가
		p0801	c0801	자연재해 안전 수준 만족 & 평가
		p0802	c0802	치안수준 만족 & 평가
		p0803	c0803	경찰인력 만족 & 평가
	문화자본	p0402	c0402	지역 문화예술활동 수준 만족 & 평가
		p0403	c0403	지역 문화예술활동 지원 만족 & 평가
	사회자본	p0901	c0901	지역사회활동 만족 & 평가
		p0902	c0902	자원봉사활동 만족 & 평가

출처: Kee et al.(2014) 인용

보다 구체적으로 하위지표들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서인석·이승종·기영화, 2014: 186-187). 우선, 인적자본은 보건, 복지, 교육이 포함된다. 보건은 지역건강상태, 의료서비스로 측정된다. 복지는 노인서비스, 장애인서비스, 보육지원서비스, 전반적 복지서비스로 측정된다. 교육은 공공도서관, 평생교육서비스, 교육환경으로 측정된다. 둘째, 경제자본은 고용, 지방재정, 전반적 지방경제가 포함된다. 고용은 직업훈련서비스, 실업자 지원정책, 개인일자리로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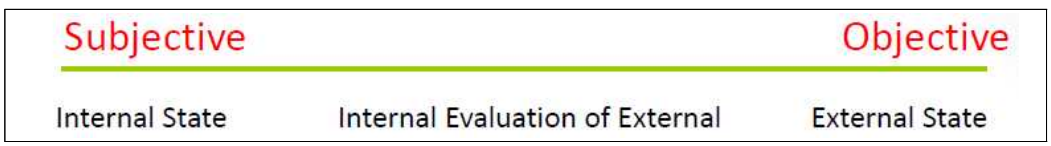
1) 자세한 설문항목은 홈페이지(www.cwbresearch.org)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된다. 지방재정은 재정규모, 예산운용, 납부세금으로 측정된다. 전반적 지방경제는 전반적 경제상황, 지역생활비로 측정된다. 셋째, 자연자본은 주변환경으로 대체된다. 주변환경은 쓰레기처리서비스, 공기오염도, 공원·녹지공간으로 측정된다. 넷째, 인프라자본은 교통시스템, 안전이 포함된다. 교통시스템은 대중교통, 인터넷서비스, 도로상태로 측정된다. 안전은 자연재해 안전수준, 치안수준, 경찰인력으로 측정된다. 다섯째, 문화자본은 문화활동으로 대체된다. 문화활동은 지역문화예술활동수준,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수준으로 측정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자본은 시민참여 및 자원봉사로 구성된다. 시민참여는 지역사회활동, 자원봉사활동이 측정된다.

3. 커뮤니티웰빙의 간주관성(intersubjectivity): 개인의 주관적 만족도(Performance) 측정을 넘어서

커뮤니티웰빙은 기본적으로 웰빙에 기초하고 있다. 웰빙은 개인이 느끼는 주관에 근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만족과 관련되어 왔으며, 이를 중심으로 개인차원의 측정이 주를 이루어 왔다. 그렇지만, White(2009)의 지적처럼 웰빙의 차원은 한편으로는 개인의 인식(individual perceptions)과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관계(social interaction), 문화가치, 그리고 신념에 의해서도 구성될 수 있다(Dawson, 2013: 49). 즉, 개인의 만족도로 측정되어온 차원을 넘어서 집합체가 가지는 특성 역시 다루어져야 함이다. 이때의 사회적 관계 또는 상호작용, 문화가치, 신념을 White(2009)는 간주관성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간주관성(intersubjectivity)의 개념으로부터 웰빙에 대한 접근을 시도해볼 수 있다. 자원의 욕구, 소망 등은 개인으로부터 생성된다. 이것은 웰빙에 있어서 개인이 부족한 것으로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Ryan & Deci, 2000). 또한, 집합체(agency)는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능력들(resources)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 집합체 또는 집단들은 개인들이 상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교대상이 될 수 있다. Appadurai(2004)는 집단을 통해서 '약자(the poor)'가 발생하며 이것이 집단 내 권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고 언급한다. 즉, 집합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은 집합체 내의 개인들이 공유하게 되는 공통된 특성이며, 이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공유된 가치들로 인해 웰빙의 수준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자료: Amanda(2012)

〈그림 2〉 주관성과 간주관성의 개념적 도식도

웰빙의 개념과 측정을 Amanda(2012) 간주관성을 통해 조금 더 구체화한다. 그는 간주관적 웰빙은 같은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행위자들이 합리적으로 경험된 대상(subjects)들에 대한 '실재적 태도(practical attitude)'로써 정의한다. 특히, 그는 주관성(Subjective)과 객관성(objective) 상호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상호작용한다면 그때 구체화된 영역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Bracken, 2009).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간주관적 웰빙은 외부상태(external state)를 나타내는 것으로 개인의 내적상태와는 구별되어 측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그림 2〉참조). 그에 따르면, 개인의 내적 상태는 특정한 상황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만족감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ex: overall life satisfaction), 이에 반해 간주관적 웰빙은 평가로써 간주될 수 있는 내용들이 다루어질 수 있다(ex: years of education).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자신의 내부에 대한 주관적 판단자가 될 수 있음과 동시에 개인의 외부상황에 대한 제3의 관찰자로서 과거의 경험과 현재 상태에 대한 판단을 모두 종합할 수 있다면 집합체로써의 현재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결국 지역커뮤니티는 외부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은 외부속성에 대해 제3자로서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지역 커뮤니티가 가진 수준(문화적, 물리적, 환경적 등)은 웰빙의 측정영역으로 포함되는 것이 적합하다.

요컨대, 많은 연구들이 웰빙 또는 커뮤니티웰빙을 연구함에 있어서 개인의 감정(주관적 만족도)에 초점이 맞춰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웰빙의 영역은 개인의 영역과 개인 외부의 영역에 대한 상태를 포괄할 때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주관적 웰빙(Performance)과 간주관적 웰빙(evaluation)을 함께 다루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활용하여 커뮤니티웰빙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영역이나 지표가 무엇인지를 다루어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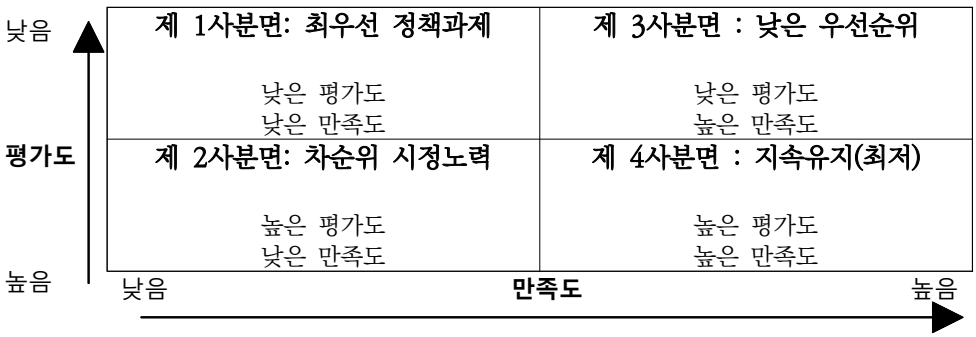
Ⅲ. 연구설계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공동체 또는 집합체에 대한 평가와 개인 수준의 만족을 기준으로 커뮤니티웰빙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도출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두 기준을 교차할 때 어떤 구분이 가능하고 그와 같은 구분을 통해서 시사점을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설문조사의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두 가지 기준을 통해 4가지 범주로 구분함과 동시에 세부 지표들 간의 우선순위 역시 등급화할 필요가 있다. 분석의 방법은 IPA 분석방법을 준용한 EPA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IPA 분석방법은

평가요소의 중요도와 성취도를 측정하여 맵핑하고, 해당 영역의 특성에 따라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IPA는 중요도(Importance)와 만족도(Performance)의 중심인 평균을 기준으로 총 4가지 4분면을 구성한다. '유지', '집중', '저순위', '과잉'으로 표시되는(변우희·장병수, 2004) 이러한 4분면을 통해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다. 특히 "집중(Concentrate Here)"면에 속한 항목들이 중요하면서도 아직 성취되지 못한 항목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부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노정철 · 변우희, 2002).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우선 중요도와 만족도를 분석하고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영역별, 각 세부 항목별로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커뮤니티웰빙의 관련요소별 사업 중요도를 도출하기 위해 평가도-만족도 분석(Evaluation-Performance Analysis: EPA)을 실시하였다. EPA 분석은 중요도와 만족도의 중앙값이나 평균값을 이용하여 X축, Y축으로 이루어진 4 사분면의 좌표상에 각각의 값의 위치를 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영역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X축과 Y축을 설정하고 위치를 표시하였으며, 평가도-만족도 분석 매트릭스의 형태는 [그림 3]과 같다. 마지막으로, 지역 간 차이가 존재하는 살펴보기 위해서 자치구별로도 대응표본 t-검증과 평가도-만족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3〉 EPA 중요도-만족도 매트릭스

2. 분석지표 및 자료

연구의 자료는 서울시 6개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기본으로 하였고, 설문기간은 2013년 3월초부터 2013년 4월말이었으며, 총 설문응답수는 1002개였다(서인석 외, 2014: 187-189; 김태훈 외, 2014: 93-94). 〈표 2〉는 설문응답자의 통계적 특성이다. 성별의 경우 남성과 여성이 393명과 589명으로 39.2%, 58.8%의 비율이었다. 연령의 경우 20대 20.2%의 비중을, 30대 22.9%의 비중을, 40대 21.1%의 비중을, 50대 16.7%의 비중을, 60대 11%의 비중을, 70대 이상 6.3%의 비중을 보여주었다.

〈표 2〉 응답자의 통계적 특성

인적요인	구성요소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393	39.2
	여성	589	58.8
연령	20대	203	20.2
	30대	230	22.9
	40대	212	21.1
	50대	168	16.7
	60대	110	11.0
	70대 이상	63	6.3
학력	고등학교 이하	310	31.8
	대학교	540	55.3
	대학원 이상	125	12.8
거주형태	자가	453	45.2
	전세	313	31.2
	월세	120	12.0
	공동주택	34	3.4
	기타	53	5.3
취업여부	비취업자	376	37.5
	취업자	583	58.2
결혼상태	미혼	314	31.3
	혼인	646	64.4
	이혼	14	1.4
거주기간	5년미만	274	27.4
	5년이상-10년미만	207	20.7
	10년이상-20년미만	221	22.1
	20년이상	266	26.6
소득	100만원미만	57	5.7
	100이상-200미만	119	11.9
	200이상-300미만	161	16.1
	300이상-400미만	189	18.9
	400이상-500미만	141	14.1
	500이상-600미만	103	10.3
	600이상	147	14.7

출처: 서인석·이승종·기영화(2014: 187-189)

학력의 경우 고등학교 이하 31.8%의 비중을, 대학교 55.3%의 비중을, 대학원 이상 12.8%의 비중을 각각 확인하였다. 거주형태의 경우 자가 45.2%의 비중을, 전세 31.2%의 비중을, 월세 12%의 비중을 각각 보여주었다. 취업여부의 경우 취업자의 비중이 60%로 확인되었다. 결혼상태의 경우 혼인상태의 비중이 65%로 확인되었다. 거주기간의 경우 5년미만 27.4%의 비중을, 5년이상 10년미만 20.7%의 비중을, 10년이상 20년미만 22.1%의 비중을, 20년 이상 26.6%의 비중을 각각 보여주었다. 소득의 경우 전체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여주었다.

Ⅳ. 분석결과 논의

1. 커뮤니티웰빙 항목별 PEA 분석결과

서울시 5개 자치구 시민이 생각하는 커뮤니티웰빙 각 세부요소에 대한 EPA 분석결과는 다음과 〈표 3〉와 같다. 총 30개의 지표 중 커뮤니티웰빙 세부요소별 만족도와 평가도의 차이에서 11개의 지표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19개의 지표가 ρ〈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만족도에서 가장 높은 커뮤니티웰빙 세부요소는 '대중교통(6.745)'이었고, 다음으로 '인터넷서비스(6.727)', '건강상태(6.336)', '도로상태(6.114)'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가도가 가장 높은 커뮤니티웰빙 세부요소 역시 '대중교통(6.456)'이었고, 다음으로 '인터넷서비스(6.3)', '의료서비스(5.907)', '쓰레기처리(5.9)' 등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표 3〉 커뮤니티웰빙 구성요인 지표별 PEA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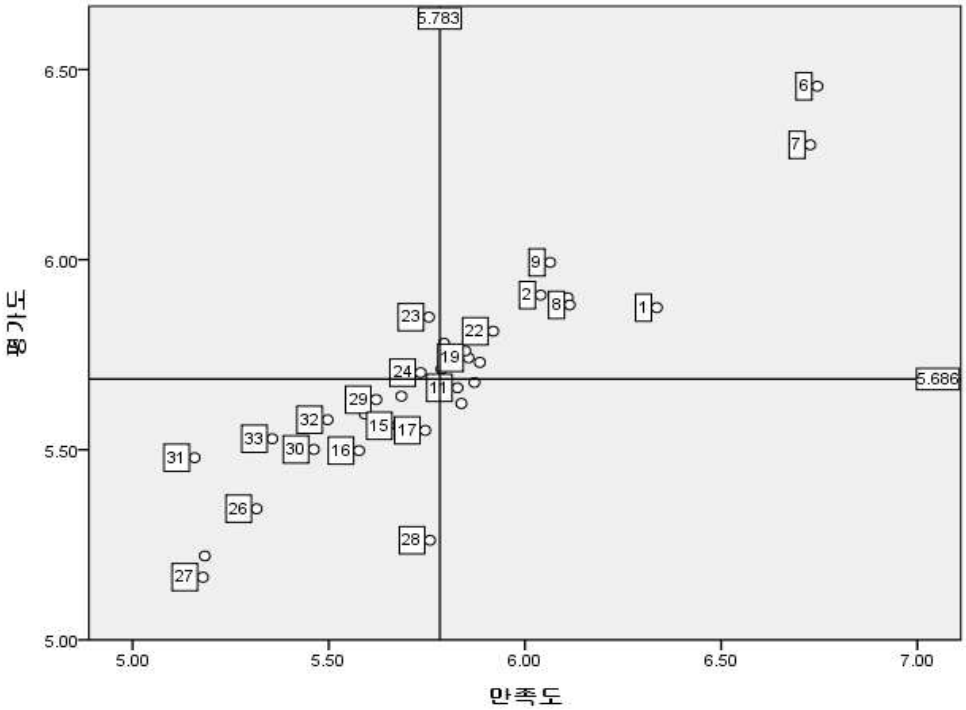
세부요소	만족도(P)		평가도(E)		t	p	P*E	우선순위
	M	SD	M	SD				
27.실업자지원정책	5.179	1.7271	5.165	1.6426	0.341	0.733	26.7	1
4.공기오염	5.184	1.9924	5.221	1.968	-0.73	0.465	27.1	2
31.납부세금적정성	5.158	1.7917	5.479	1.711	-6.324	0	28.3	3
26.직업훈련서비스	5.316	1.6574	5.345	1.6272	-0.655	0.512	28.4	4
33.지역생활비	5.356	1.7684	5.529	1.7262	-3.397	0.001	29.6	5
30.예산운용	5.462	1.6545	5.501	1.6594	-0.922	0.357	30	6
28.일자리공급	5.758	1.8924	5.262	1.7059	9.761	0	30.3	7
16.보육지원서비스	5.577	1.7565	5.498	1.722	1.911	0.056	30.7	8
32.전반적경제상황	5.497	1.7571	5.579	1.7091	-1.782	0.075	30.7	9
25.자원봉사활동	5.592	1.805	5.594	1.6595	-0.036	0.972	31.3	10
15.장애인서비스	5.675	1.7724	5.563	1.7561	2.766	0.006	31.6	11
29.재정규모	5.621	1.7275	5.632	1.7419	-0.276	0.783	31.7	12
17.전반적복지서비스	5.746	1.8013	5.551	1.739	4.336	0	31.9	13
12.평생교육서비스	5.685	1.8762	5.641	1.7871	0.906	0.365	32.1	14
24.지역사회활동	5.734	1.7217	5.703	1.6489	0.634	0.526	32.7	15
5.공원녹지공간	5.838	2.1919	5.622	2.0817	4.195	0	32.8	16
11.공공도서관	5.828	1.9336	5.663	1.877	3.487	0.001	33	17
21.자연재해안전도	5.787	1.78	5.712	1.7679	1.739	0.082	33.1	18
14.노인서비스	5.871	1.8028	5.677	1.7306	4.596	0	33.3	19
10.문화예술지원	5.794	1.8809	5.78	1.7628	0.306	0.76	33.5	20
23.경찰인력	5.755	1.8714	5.849	4.6063	-0.685	0.494	33.7	21
13.교육환경	5.885	1.918	5.73	1.8428	3.372	0.001	33.7	22

22.치안안전도	5.919	1.8985	5.812	1.9053	2.343	0.019	34.4	23
2.의료서비스	6.04	1.7537	5.907	1.7078	2.929	0.003	35.7	24
8.도로상태	6.114	1.9157	5.881	1.8242	5.209	0	36	25
3.쓰레기처리	6.109	1.9235	5.9	1.8114	4.454	0	36	26
9.문화예술활동	6.064	1.9696	5.993	1.8077	1.46	0.145	36.3	27
1.건강상태	6.336	1.7953	5.874	1.6168	7.89	0	37.2	28
7.인터넷서비스	6.727	1.7891	6.302	1.7698	9.526	0	42.4	29
6.대중교통	6.745	2.0434	6.456	1.9703	6.018	0	43.5	30
평균	5.78	-	5.69	-	-	-	-	-

만족도에서 가장 낮은 커뮤니티웰빙 세부요소는 '납부세금적정성(5.158)'이었고, 다음으로 '실업자지원정책(5.179)', '공기오염(5.184)'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가도가 가장 낮은 커뮤니티웰빙 세부요소는 '실업자지원정책(5.165)'이었고, 다음으로 '공기오염(5.221)', '일자리공급(5.262)' 등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만족도와 평가도를 통해 순위화한 정책시급성을 보면, 커뮤니티웰빙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시민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실업자지원정책이었다. 다음으로 공기오염, 납부세금적정성, 직업훈련서비스, 지역생활비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시가 경제적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경제 및 경제적 생활에 큰 관심과 비중을 부여하고 있다고 판단해볼 수 있다. 즉, 개인의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서울시민에게 시급하다고 바라본다는 것이다. 다만, 2위로 나타난 커뮤니티웰빙 세부요소는 공기오염이었다. 자연환경에 대해서도 커뮤니티웰빙의 중요한 요소로써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만족도와 평가도를 통해 순위화한 정책시급성이 가장 낮은 것은 대중교통이었다. 이는 대중교통의 경우 상당히 잘 개발되어 있고 잘 구성되어 있다고 바라보는 것이다. '서울의 대중교통은 복잡하고 불편하다'라는(동아일보, 20040707; 20041014)[2] 기존의 시선이 서울시민들에게 있어서는 편견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서비스, 쓰레기처리, 도로상태 등의 물리적 환경은 상당히 잘 되어있어 개인적으로나 집합체 수준으로나 충분하다고 바라보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동아일보 정세진 기자가 작성한 2004년 7월 7일자 신문에는 외국인들이 서울의 교통체계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글을 통해 서울시의 교통시스템 개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동아일보 이진한 기자가 작성한 2004년 10월 14일자 신문에는 버스노선 안내도를 이용자가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서울의 대중교통이 매우 복잡하고 불편하였음을 언급하였다. 이 외에도 많은 글들에서 서울의 교통체계를 지적하고 있었는데, 서울과 인근 수도권 전체로 교통체계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된다.



상기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물리적 환경으로 생각되는 커뮤니티웰빙의 다양한 외적요소(건물, 교통편, 복지시설, 편의시설)는 시민들이 충분하고 잘 시행되는 사업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판단된다. 반면, 자연환경의 훼손과 삶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생활에 있어서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거나 서울시의 수준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물리적 환경 및 편의시설 등 한국의 모든 도시 중에서 월등하게 앞선다. 다만, 지나친 발전으로 인해 훼손된 환경의 경우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공원녹지공간의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커뮤니티웰빙의 중간수준(16위)으로 대중교통(30)이나 인터넷서비스(29) 수준으로 낮추려면 지속적인 정책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가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PEA를 통해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표 4〉참조). 제1사분면(최우선 정책과제)에는 14개 세부요소가, 제2사분면(차순위 시정노력)에는 2개 세부요소가, 제3사분면(낮은 우선순위)에는 3개 세부요소가, 마지막 제4사분면(지속유지)에는 11개 세부요소가 포함되었다. 가장 우선적으로 커뮤니티웰빙을 높이려면 제2사분면의 2개의 만족도를 높여(경찰인력, 지역사회활동) 제4사분면의 숫자를 늘리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일 수 있다. 제3사분면의 경우 평가수준이 낮은 경우라는 점에서 이 역시 집합체 단위의 평가도를 높이는 사업을 고안해볼 필요가 있다. 즉, 공원녹지공간, 공공도서관, 노인서비스는 공공서비스로써 서울시 정부가 충분히 강화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를 통해서도 커뮤니티웰빙 수준을 효율적으로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표 4〉 커뮤니티웰빙 구성요인 항목별 PEA 매트릭스

구분		만족도	
		낮음	높음
평가도	낮음	4, 12, 15, 16, 17, 25, 26, 27, 28, 29, 30, 31, 32, 33	5, 11, 14
	높음	23, 24	1, 2, 3, 6, 7, 8, 9, 10, 13, 21, 22

다만, 만족도와 평가도가 낮아 시급한 정책사업의 경우 14개가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커뮤니티웰빙이 잘 구현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볼 수 있다. 30개중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으면 이들 모두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 포함된 커뮤니티웰빙 세부요소는 '공기오염, 평생교육서비스, 장애인서비스, 보육지원서비스, 전반적복지서비스, 자원봉사활동, 직업훈련서비스, 실업자지원정책, 일자리공급, 재정규모, 예산운용, 납부세금적정성, 전반적경제상황, 지역생활비'로 확인되었다. 평생교육, 장애인, 보육지원 등은 공공서비스로 바라볼 수 있지만, 이들은 역시 생활유지를 하기 위한 경제비용과도 관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사실상 가계경제와 관련된 지표들을 가장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정책과제이며, 오랫동안 다루어왔음에도 여전히 부족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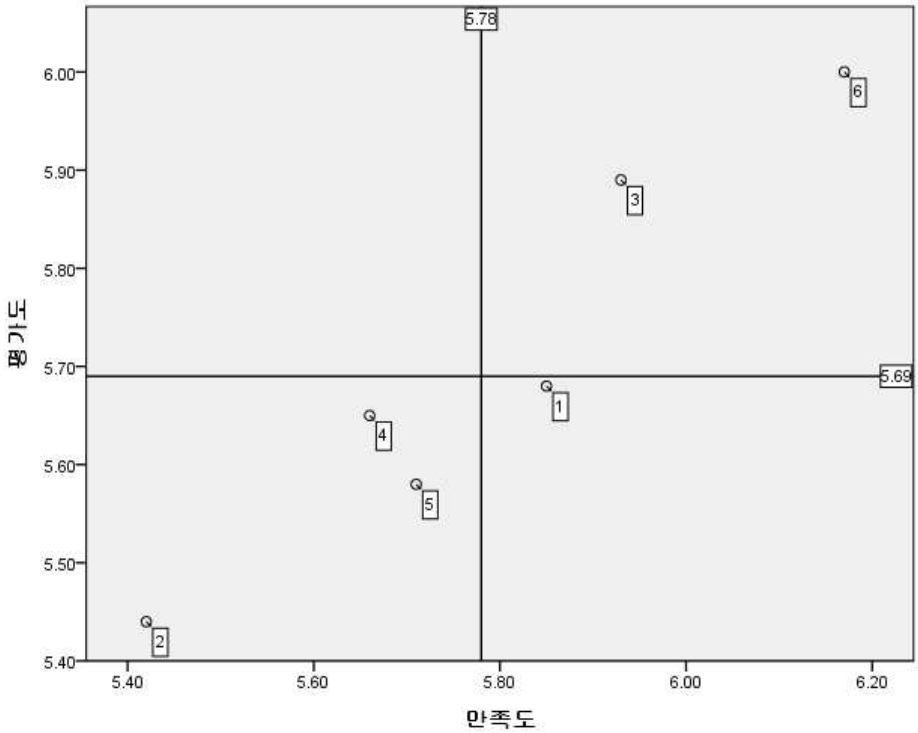
2. 커뮤니티웰빙 영역별 PEA 분석결과

서울시 5개 자치구 시민이 생각하는 커뮤니티웰빙 영역에 대한 EPA 분석결과는 다음과 〈표 5〉와 같다. 총 6개의 요인 중 커뮤니티웰빙 세부요소별 만족도와 평가도의 차이에서 3개의 요인만이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고 있었다(ρ〈0.001). 만족도에서 가장 높은 커뮤니티웰빙 영역은 '인프라자본(6.17)'이었고, 2위가 '문화자본(5.93)', 3위가 '인적자본(5.85)', 4위가 '자연자본(5.71)', 5위가 '사회자본(5.66), 6위가 '경제자본(5.42)'이었다. 평가도가 가장 높은 커뮤니티웰빙 영역 역시 '인프라자본(5.96)'이었고, 2위가 '문화자본(5.89)', 3위가 '인적자본(5.68)', 4위가 '사회자본(5.65)', 5위가 '자연자본(5.58)', 6위가 '경제자본(5.44)'로 확인되었다. 만족도와 평가도에서 차이를 보인 영역은 사회자본과 자연자본의 순위가 변동이 있었고, 나머지 요인들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만족도 및 평가도 모두에서 가장 낮은 커뮤니티웰빙 영역은 '경제자본(5.158)'이었다. 만족도에서는 사회자본, 자연자본이 그 뒤를 이었으며, 평가도에서는 자연자본, 사회자본이 그 뒤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커뮤니티웰빙 구성요인에 대한 영역별 PEA 분석결과

항목	만족도		평가도		t	p	P*E	우선순위
	M	SD	M	SD				
1.인적자본	5.85	1.413	5.68	1.489	6.599	.000	33.2	4
2.경제자본	5.42	1.379	5.44	1.422	-.634	.526	29.5	1
3.문화자본	5.93	1.848	5.89	1.725	.981	.327	34.9	5
4.사회자본	5.66	1.658	5.65	1.588	.326	.745	32.0	3
5.자연자본	5.71	1.665	5.58	1.668	3.522	.000	31.9	2
6.인프라자본	6.17	1.479	5.96	1.648	6.437	.000	36.8	6
평균	5.78	-	5.69	-	-	-	-	-

만족도와 평가도를 통해 순위화한 정책시급성을 보면, 커뮤니티웰빙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시민들이 판단하고 있는 영역은 경제자본이었다. 다음으로 자연자본, 사회자본, 인적자본, 문화자본, 인프라자본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시민들의 의식과 생활속에서 경제적 여건이 충실하게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함을 의미하며, 가장 열악하고 높여야 될 커뮤니티웰빙의 요인으로 경제자본이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 서울시는 여타 지역들에 비해 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생활을 여유하기 위한 주택 및 생활물가 수준 역시 그에 못지 않게 높은 편이다. 이러한 생활환경 하에서 경제적 소득이 높다고 할지라도 실제 생활을 유지하고 생활에 여유를 찾는 등 지역커뮤니티에서 삶의 가치를 얻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 이에 반해서 인프라자본은 충분하게 확보되었다고 바라보고 있다. 서울은 한국에서 오랫동안 대표적인 도심지, 그리고 중심지로써 자리해왔으며 다소 복잡할지라도 다양한 대중교통과 다른 지역에서는 랜드마크로 이해될 수 있을 정도의 건물들이 즐비하다. 이러한 외적요소로 인해 시민들에게 인프라환경은 충분하게 확보되었다고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표 6〉 커뮤니티웰빙 구성요인에 대한 영역 매트릭스

구분		평가도	
		낮음	높음
만족도	낮음	4.사회자본, 5.자연자본, 2.경제자본	1.인적자본
	높음	-	3.문화자본, 6.인프라자본

그렇지만, 물리적 환경과는 다르게 자연환경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자연자본의 정책시급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람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사회자본(32.0)은 자연자본(31.9)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0.1점 차이). 즉, 커뮤니티웰빙을 통해 나타난 서울시의 상황은 환경적으로 매우 문제가 있으며, 사람들 간의 관계도 유대감이 높지 않아 '삭막한 도시'를 연상케 한다. 경제자본이 일상생활을 여유하기 위한 '의식주'의 생물학적 기본본능이라면 기본적 욕구 충족이 실현된다면(GDP와 같은)커뮤니티의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해서는 실제로 현시점에서 자연자본과 사회자본이 가장 중요한 척도일 수도 있다. 이와 달리 문화와 인프라와 같은 요소는 이미 충분히 잘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시행중인 정책들을 유지하면 될 것으로 이해된다.

3. 서울시 조사대상 자치구의 항목별 PEA 분석 및 정책시급성 순위

〈표 7〉는 자치구의 항목별 PEA 분석을 토대로 정책시급성을 제시한 것이다. 대상지역은 총 6개로 강남구, 구로구, 동대문구, 마포구, 종로구, 중구였으며, 표본량은 강남구 206개, 구로구 201개, 동대문구 196개, 마포구 200개, 종로구 120개, 중구 80개였다. 표본량은 강남구가 가장 많았으며, 중구가 가장 적었다.

분석결과에 기초할 때 자치구별 정책시급성 순위는 다음과 같았다. 강남구의 경우 가장 시급한 정책사업순위는 공기오염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다음으로 실업자지원정책, 직업훈련서비스, 지역생활비, 납무세금적정성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구로구의 경우 가장 시급한 정책사업순위는 공기오염이었으며, 다음으로 공원녹지공간, 납부세금적정성, 장애인서비스, 공공도서관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동대문구의 경우 가장 시급한 정책사업순위는 예산운용이었으며, 다음으로 실업자지원정책, 재정규모, 일자리공급, 납부세금적정성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마포구의 경우 가장 시급한 정책사업순위는 실업자지원정책이었으며, 다음으로 납부세금적정성, 공기오염, 직업훈련서비스, 전반적경제상황의 순이었다. 종소구의 경우 가장 시급한 정책사업순위는 실업자지원정책이었으며, 다음으로 직업훈련서비스, 공기오염, 지역생활비, 납부세금적정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중구의 경우 가장 시급한 정책사업순위는 공기오염이었으며, 다음으로 납부세금적정성, 지역생활비, 실업자지원정책, 직업훈련서비스의 순으로 나타났다.

5위 안에 포함된 세부항목이 6개 자치구 모두에서 확인된 경우는 납부세금적정성이 유일하였고, 5위 안에 포함된 세부항목이 5개 자치구에서 확인된 경우는 공기오염, 실업자지원정책이 있었다. 5위 안에 포함된 세부항목이 4개 자치구에서 확인된 경우는 직업훈련서비스가 있었으며, 5위 안에 포함된 세부항목이 3개 자치구에서 확인된 경우는 지역생활비가 있었다. 즉, 공통적으로 시급성이 확인된 경우는 경제적인 부분과 공기오염에 대한 부분이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표본을 구분하지 않고 분석했던 결과와 유사하였다.

〈표 7〉 자치구의 항목별 PEA 분석결과

항목	강남		구로		동대문		마포		종로		중구	
	점수	시급	점수	시급	점수	시급	점수	시급	점수	시급	점수	시급
1.건강상태	46.4	27	30.1	28	34.4	26	38.8	26	38.2	20	35.1	26
2.의료서비스	44.1	23	27.8	25	34.6	27	36.7	24	38.5	21	32.2	20
3.쓰레기처리	43.0	22	29.7	27	35.1	28	36.6	23	39.0	22	31.7	16
4.공기오염	28.8	1	21.1	1	27.9	8	31.5	3	28.9	3	23.2	1
5.공원녹지공간	35.3	7	22.1	2	32.1	21	43.2	28	35.4	15	30.0	10
6.대중교통	48.2	28	32.2	29	38.8	30	48.6	30	57.8	30	42.1	30
7.인터넷서비스	51.3	30	34.1	30	37.4	29	45.5	29	47.4	29	40.0	29
8.도로상태	45.1	25	27.7	24	31.7	19	39.8	27	40.3	23	31.1	14

9.문화예술활동	45.3	26	25.7	19	32.1	23	36.8	25	47.4	28	37.6	28
10.문화예술지원	39.2	17	24.3	16	30.4	14	35.7	21	41.1	24	35.7	27
11.공공도서관	37.7	13	23.0	5	30.8	17	36.4	22	41.7	25	33.6	25
12.평생교육서비스	36.2	8	24.0	14	30.3	12	35.6	20	36.8	18	32.7	22
13.교육환경	48.5	29	23.2	7	30.0	11	33.4	9	37.7	19	32.3	21
14.노인서비스	41.3	20	23.2	8	33.7	25	35.1	18	36.3	17	31.9	17
15.장애인서비스	37.7	12	23.0	4	32.1	22	34.3	16	33.1	12	29.6	8
16.보육지원서비스	38.0	14	23.1	6	28.7	10	33.7	12	31.8	8	28.8	6
17.전반적복지서비스	39.2	16	23.8	10	30.4	13	34.0	14	35.3	14	29.7	9
21.자연재해안전도	36.8	11	26.9	21	31.9	20	35.4	19	36.1	16	32.7	23
22.치안안전도	42.0	21	27.9	26	30.8	16	33.5	10	43.1	26	32.1	18
23.경찰인력	39.3	18	26.9	23	28.5	9	33.5	11	46.6	27	32.9	24
24.지역사회활동	36.7	10	26.9	22	32.3	24	34.7	17	34.0	13	32.1	19
25.자원봉사활동	34.5	6	25.2	17	31.3	18	33.9	13	32.9	10	30.5	12
26.직업훈련서비스	31.0	3	23.8	12	26.9	6	32.1	4	28.4	2	28.7	5
27.실업자지원정책	29.1	2	23.3	9	25.5	2	30.1	1	25.2	1	27.2	4
28.일자리공급	36.3	9	25.9	20	26.4	4	32.7	7	30.5	6	31.1	13
29.재정규모	44.3	24	23.8	11	25.5	3	34.0	15	33.0	11	31.3	15
30.예산운용	38.4	15	23.8	13	25.4	1	33.1	8	31.0	7	29.4	7
31.납부세금적정성	33.1	5	22.4	3	26.7	5	31.4	2	30.2	5	25.3	2
32.전반적경제상황	39.5	19	24.1	15	27.0	7	32.1	5	32.3	9	30.0	11
33.지역생활비	32.3	4	25.2	18	30.6	15	32.3	6	29.0	4	26.0	3
N	206		201		196		200		120		80	

이에 반해, 각 구별로 차이가 나타난 항목 역시 있었는데 구로구의 경우 공원녹지공간, 장애인서비스, 공공도서관 등이었고, 동대문구의 경우 재정규모와 예산운용이었다. 강남구, 마포구, 종로구, 중구는 5순위 정책시급성이 동일하였다. 즉, 구로구의 경우는 실제 정부의 공공서비스가 충분하지 않다고 나타난 결과이며, 동대문구의 경우는 지방정부의 재정관리에 의구심이 있다고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과거부터 구로구의 경우는 낙후지역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많은 개선과 시차원의 노력이 있었을지라도 여전히 더 많은 투자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아울러, 동대문구의 경우는 정주인구에 비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써 그에 따라 재정수준도 편차가 높을 것이라 보이며, 이것이 재정운영의 중요성과 더불어 관리에 대한 의문을 보였을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진다.

V.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연구는 커뮤니티웰빙이 개인과 집합체의 두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음에 착안, 둘 모두를 고려한 요인 및 지표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Amanda(2012)의 주장처럼 개인과 집합체를 동시에 고려한다는 것은 개인의 내적 심리와 외부 상태에 대한 평가로 구성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외부상태에 대한 평가를 위해 간주관적 웰빙(intersubjective wellbeing) 개념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착안하여 분석한 결과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우선, 모든 지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물리적 환경으로 생각되는 커뮤니티웰빙의 다양한 외적요소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자연환경의 훼손과 삶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생활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내었다. 연구의 대상인 서울시는 물리적 환경 및 편의시설 등 상대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는 도시이나, 지나친 개발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상대적으로 부유층이 많은 지역이라서 소득에 대한 압박이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PEA를 통해 분류한 결과 커뮤니티웰빙을 높이는 가장 신속한 방법은 경찰인력 및 지역사회활동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었다.

둘째, 요인수준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커뮤니티웰빙에서 가장 우선적인 해결해야하는 영역은 경제자본이었고, 이어서 자연자본, 사회자본, 인적자본, 문화자본, 인프라자본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별지표의 연구결과처럼 서울시민들의 의식과 생활속에서 경제적 여건의 중요성을 크게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경제적 삶의 여건(예: 주택 및 생활물가 등)을 충족하기 위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여건은 경제적 소득이 높다고 할지라도 지역커뮤니티에서 삶의 가치를 얻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지표에 대해서 지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강남구는 공기오염에 대한 정책사업이 가장 중요하였고, 구로구 역시 공기오염 정책사업이 가장 높은 순위였으며, 중구의 경우도 공기오염을 확인되었다. 동대문구의 경우는 예산운용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마포구와 종로구의 경우는 실업자지원정책을 가장 우선시 수행해야 하는 정책사업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6개 지역이 모두 중요하다고(5위 이내) 인식한 지표로는 공기오염, 직업훈련서비스, 실업자지원정책, 납부세금적정성, 지역생활비 등이 포함되었다.

이상의 본 연구결과들은 6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공통적으로 커뮤니티웰빙을 위해서 해소되어야 한다고 여겨지는 지표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실무자들에게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그간 웰빙을 개인의 주관에서 측정하던 방식을 넘어서 집합체에 대한 판단을 측정방식에 포함시킴으로써 향후 연구를 위한 연구방법론적 기여를 하였으리라 기대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간주관적 웰빙의 개념적 활용은 향후 웰빙연구의 개념에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몇 가지 시사점과 함께 한계 및 아쉬움도 존재한다. 우선, 이 연구가 지자체에 좋은 정책자료

를 제시하려는 목적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료의 지속적 보완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연구의 개념과 의미를 발견한다는 점에서 꼭 시기가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정책자료로 활용하기에는 2013년 자료는 시기상 뒤처져 있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으로 측정된 또는 업데이트된 자료를 통해서 연구하고 이를 비교함의로써 제시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커뮤니티웰빙이 미래시점을 바라볼 때 본 연구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현상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 향후 다루어야할 지표를 측정하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때 향후 다루어야 할 지표 또는 과제로는 중요도(importance)와 같은 개념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기영화·김윤지·김남숙. (2013). 커뮤니티웰빙 연구를 위한 국제지표 분석: 한국적 함의의 도출. 「지역발전연구」, 22(1): 1-35.

노정철·변우희. (2002). 백제문화권 관광발전을 위한 가치평가와 대응전략: IPA 적용. 「관광·레저연구」, 14(2): 25-46.

변우희·장병수. (2004). 관광상품 지각에 의한 관광목적지 평가. 「관광학연구」, 28(1): 83-107.

서인석·이승종·기영화. (2014). 지방행정서비스와 커뮤니티웰빙 구성요소 간 관계: Kee 모형의 6개 자본요인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3(2): 175-202.

서재호·김혜정·이승종. (2012). 지방정부의 가치지향으로서 커뮤니티 웰빙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6(1): 33-56.

이승종·기영화·김윤지·김남숙. (2013). 커뮤니티웰빙 지표에 대한 공무원과 전문가의 평가비교연구: AHP 기법의 적용. 「한국행정학보」, 47(2): 313-337.

김태훈·서인석·기영화. (2014). 커뮤니티웰빙 평가요소로서 지방행정서비스요인의 적합성 분석. 「지방행정연구」, 28(2): 81-109.

Appadurai, A. (2004). The capacity to aspire: Culture and the terms of recognition. *Culture and public action*, pp: 59-84.

Bracken, J. A. (2009). *Subjectivity, objectivity, and Intersubjectivity.* West Conshohocken, PA: Templeton.

Dawson, Neil M. (2013). *An assessment of multidimensional wellbeing in rural Rwanda: impacts of and implications for rural development and natural resource conservation.* Thesis submitted to the University of East Anglia, U.K.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1-243.

Hicks, J. R. (1939). The Foundations of Welfare Economics. *Enomomic Journal*, 49; 696-712.

Kee, Youngwha, Yunji Kim, and Rhonda Phillips. (2014). *Community Wellbeing: Learning in Communities.* Springer Briefs Series.

Kee, Youngwha, and Namsook Kim. (2012). Development of New Indicators to Measure Community Well-being. *Discovering new frontiers in Quality-of-Life research.* 2012-XI-ISQOLS CONFERENCE.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 68-78.

Smith, Jan Pieter. & Hoekstra, Rutger. (2011). *Measur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ocietal Progress: Overview and Conceptual Approach.* Statistics Netherlands. pp: 1-106.

White, S. C. (2009b). *Analyzing Wellbeing: A Framework for Development Practice.* University of Bath/Wellbeing in Developing Countries Research Group, (Wellbeing in Developing Countries (WeD) Working Papers; WeD Working Paper 09).

Wolf, Amanda. (2012). Intersubjective concepts and measures of wellbeing for public policy. *Working paper of Conference in Victoria University*, School of Government(White, 2009)

접수일(2017년 02월 27일)
수정일(2017년 04월 13일)
게재확정일(2017년 04월 19일)